

World View

#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세요”

## -미얀마 난민 수용소를 가다(하)

글=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후원=대한불교진흥원/다음카페 '히말라야의 꿈'

### #샤프란 혁명, 소리 없는 아우성

샤프란(saffron), 한국의 주부들에게 '샤프란'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빨래할 때 쓰는 섬유유연제의 이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러 '샤프란'이 식물의 이름이란 것을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미얀마에서는 샤프란이라고 하면, 스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스님들의 승복이 샤프란의 선황색(鮮黃色)이기 때문입니다. 실재는 그보다 더 진한색이지만, 2007년 9월 미얀마의 스님들이 군부독재의 인권탄압과 연료보조금제도 폐지 등에 항거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수많은 스님들이 살상을 당하고 구금되거나 국외로 망명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샤프란 혁명'이라고 합니다.

샤프란 혁명은 미얀마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인 스님들이 대규모로 떨쳐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얀마 불교계가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포 캠프에는 7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마다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20여 명 이상의 스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사는 스님은 모두 130여 명입니다. 7개의 사원에서 생활 하는 스님들 가운데는 2007년 '샤프란 혁명'에 시위를 주도하며 적극 가담했던 분도 있고 승단에 대한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캠프로 들어 온 분도 있습니다.

### #아이들 교육 포교 위한 학교가 필요해요

캠프의 서쪽 끝, 미얀마 국경으로 통하는 길옆에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절의 이름은 '붓다 타탄나 예파 샤프란(Buddha Tha Tana Yeiktha Saffron)'입니다. 올해 77세인 우 푸리아(U Thuriya) 노스님과 57세인 우 오바다(U Aw Bar Tha) 스님이 10여 명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곳입니다. 스님들의 이름 앞에 붙는 우(U)자는 존칭입니다.

사원으로 찾아갑니다. 캠프의 사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은 뿔테안경을 쓴 푸리아 노스님이 영어를 하여 대화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캠프를 취재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이곳의 사람들과 정황을 한국의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이 절의 지도자(주지인) 오바다 스님입니다.”

오바다 스님은 인상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 구릿빛 얼굴에서 풍기는 강한 이미지가 샤프란 혁명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담았다는 것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이 된 지 17년 되었습니다. 이곳의 사원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 저러하니 우리도 감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뭔가 하려해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오히려 불자들이 조금씩 협조를 해서 이렇게 사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난민촌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불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그 원력이 이뤄지도록, 한국의 불자들이 힘을 보태도록 저희가 나서보겠습니다. 오바다 스님께서는 언제 이곳에 오셨는지요?”

스님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잠시 허공을 응시합니다. 법당에 침묵이 흐르는 짧은 시간, 오바다 스님이 가사를 고쳐 읽으며 앉음을 깨끗이 합니다.



태국 메솻의 미얀마 어린이. 현재 국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 곳을 찾는 고아들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저는 2007년 12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해 9월 5일부터 미얀마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시위에 참가 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압니다. 당시 150여 스님이 총을 맞고 군화에 짓밟혀 죽었습니다. 300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고 무수한 스님들이 국경을 넘어 태국과 인근 국가로 망명했습니다.”

“스님도 그 시위에 동참하셨나요?”

“물론입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스님은 머리를 숙여 뒤쪽을 보여 주었습니다. 깊은 상처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상처는 군인들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찍어서 생긴 겁니다. 이 충격으로 지금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안목에서 볼 때 스님들의 시위는 군

사정부가 너무나 많은 국민을,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났고 스님들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스님들에 대한 모욕과 폭력행사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얀마 국민들도 모두가 울분을 참지 못했지요.”

오바다 스님은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어서인지 그때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님들에 대한 모욕과 폭력’이란 2007년 샤프란 혁명의 기폭제가 된 ‘포쿠코 승려 폭행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해 9월 5일 정부의 연료보조금 제도 폐지 등에 항의하는 평화시위대를 군정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스님들도 상당수 시위

에 가담했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3명의 스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폭행과 조롱을 당했는데, 소총개머리판으로 무수히 맞았고 승복을 다 벗긴 채로 풀려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었던 스님에 대한 군정의 폭행과 모욕은 승단과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시위에 뛰어들었고, 샤프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어린이 교육에 사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병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학교를 통해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위생도 점검하고 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쳐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이 사원 옆의 부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이미 20여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원을 지을 때 캠프에 사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았기 때문에 학교 짓는 일에는 다시 시주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주하는 것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앉은 바로 뒤에 사각형 아크릴 불전함 하나 놓여 있고 그 바닥에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 20달러 지폐 한 장을 접어서 넣고 합장을 합니다. 스님들의 원력이 이루어지시길...

### #새생명학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메솻(Mae Sot)은 태국의 작은 도시입니다. 태국 전체 영토의 중앙에서 서북부 미얀마와의 국경 쪽에 있습니다. 방콕에서 800Km가 넘는 거리이고 버스로 8시간 달려가면 도착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면 강원도 양구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는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절반이 미얀마에서 넘어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얀마 사람이란 시민권을 얻은 경우이고, 난민으로 유입된 미얀마 인구는 집계 불가능합니다. 고아들이나 청소년들이 고아원에 수용되어 사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통째로 숨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취업하여 숨죽이며 사는 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메솻의 변두리에 새생명학교(New Blood School)가 있습니다. 이름은 학교지만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곳은 아니고, 미얀마에서 넘어온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 학교에는 고아들이 127명이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 살에서 열두 살까지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얀마에서 고아가 되었거나 국경을 넘다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입니다.

현재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337명입니다. 학교 안에서 먹고 자는 고아 외에는 건너가 차량을 이용해 등교를 하는데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지만,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도 50명이나 됩니다.

8년 전 학교를 설립해 슬픈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오 울타리를 허물지 않고 버텨 온 쇼우(Shaw) 교장은 아내와 함께 학교 안에서 생활하며 고아들을 극진하게 보살핌니다. 그는 전생애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을까요?

후원물품을 실은 트럭이 새생명학교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마당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과자상자와 못자리, 이불, 풍기를, 세제, 칫솔, 치약, 세숫비누, 축구공, 등을 마당에 내려놓으니 아이들은 마냥 신나합니다.

쇼우 교장은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고 영봉 스님은 “뭘, 그런 절차가 필요하냐”고 거절하지만 결국 사진 몇 장을 남기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눈을 말뚝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단단 2겹 봉제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림어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겹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 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 회색
- 구 분 :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 상·하의 각 ₩20,000원
- ※ SET 구매시 ₩38,000원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낚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안감 울림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